소년단

1955.3

소년단원들의 봄 맞이

눈보라 사납던 추운 겨울은 어느듯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 왔어요.

모란봉에 올라 멀리 앞을 내다 보면 강'가의 버드나무들도 움이 파릇파릇 붙어 나고 기름진 들판은 푸른 옷을 입은듯 합니다.

봄은 정말 모든 것이 움트는 계절이지요.

공장의 아저씨들은 이 봄에 더욱 생산을 올리기 위하여 기대 앞에서 불꽃을 날리고, 마을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밭을 갈고 씨 뿌리기에 바쁘겠지요.

이렇게 생각할때 나의 가슴은 참으로 새 희망에 가득찹니다.

《나는 어떻게 이 승리의 봄을 맞이할가? 참 할 일도 많지. 지난 가을에 거둔 꽃씨들을 꽃밭에 뿌려야지요. 지난 봄에 모란봉에 심은 어린 잣나무도 가꾸어 주어야지. 그리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구……》.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이렇게 혼자서 속삭이면서 책상 앞에 모신 원수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보았지요. 그랬더니 원수님은 웃음을 띄우시고 《참 훌륭한 생각을 하였다.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여라! 그리고 부지런한 아이가 되여라》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곧 일기책에 올 봄에 할 일들을 적어 나갔지요.

무엇보다도 이번 학기에는 뒤떨어진 력사와 자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집 울타리 밑에 꽃밭을 가꾸고 학교의 교재원에는 꽃씨를 선물하고 아침 일찌기 일어나면 쓰딸린 거리의 어린 가로수들과 잔디밭에 물을 줄 것……등 차례로 할 일들을 적었답니다.

저녁에 공장에서 돌아 오신 아버지께서도 이것을 보시더니 퍽 기뻐하시는 것이였지요.

나는 날마다 일기책에 적은 이 결심을 어기지 않고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면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인민 학교를 졸업할테고 우리 집 꽃 밭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지요.

평양 제3 중학교 인민반
5학년 정 진 옥

영웅 어머니

한 창 수

따뜻한 봄날이였습니다.

전국 다수확 모범 농민 대회에서 돌아온 리 찬화 영웅 어머니는 이날도 돼지들을 돌봐 주노라고 돈사 (돼지 우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단원들의 한패가 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어저께 분단 열성자 모임에서 영웅 어머니를 찾아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지요.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분단 위원장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당기며 졸라댔습니다

평소에 말이 적고 자기 자랑이라군 입 밖에 내지 않는 어머니도 소년단원들의 성화에 못 이겨 끝내 이야기를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　*　*

리 찬화 영웅 어머니는 7번째 국영 신계 종합 농장 곡산 분장에서 축산 로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우리 인민 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하던 시기였습니다. 증오스런 원쑤들의 포 소리가 이 농장 가까이까지 울려 왔지요. 농장에서도 모두 후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영웅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맡아 길러온 농장의 양들을 걱정하였습니다.

양들을 몹시 사랑하여 온 영웅 어머니는 양들을 그대로

버려 두고는 걸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믄 좋니?》.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말했지요.

《가다가 잘못되더라도 내게 맡겨진 양은 내가 데리고 가야지》.

나라의 양들을 몹시 중하게 여긴 어머니는 끝내 이렇게 결심을 했지요.

한마리라도 모르지만 117마리나 되는 양을 천리 길을 몰아 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도 어려운 일이지요. 가는 길에는 큰 강도 있고 봉우리도 있고 더우기 하늘에서는 원쑤놈들의 비행기가 쉴 새 없이 날아 다니며 지랄을 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가 길러온 귀여운 양들을 몰고 높고 낮은 봉우리를 넘으며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원쑤놈들의 비행기가 나타나면 양들을 잔 솔나무 숲 속에 피하게 하였지요.

양을 몰고 가면서 어머니는 곤난 앞에 부닥친 때마다

《나는 로동당원이다!》

라고 마음 속에 명심하면서 곤난을 참아 냈답니다.

양들은 때때로 배가 고파서 허덕였지요. 이런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애야 양들을 좀 보고 있어라》.

이렇게 영웅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양을 보게 하고 마을로 내려가 집집을 찾아 다니면서 사료를 구해 오군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여기까지 말하였을 때 많은 양들이 한마리도 상

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갔을가?고 걱정스럽게 생각한 소년단원들은 다우쳐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몇 마리나 남았나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마에 드리운 머리칼을 올리며 웃기만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천리 먼 길을 열 일곱 날이나 밤낮없이 걸어 자기가 맡은 양을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신의주까지 후퇴하였습니다.

《야!》하고 듣고 있던 소년단원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후퇴를 끝내고 돌아온 어머니에게는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돌이킬 사이도 없이 농장 복구의 앞장에 나섰습니다. 흩어진 양과 돼지를 모아야 했고, 널려진 농장 재산을 거두어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푸름푸름 날이 밝을 때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농장 근처의 마을과 벌판을 돌아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50—60리 깊은 산 속을 양을 찾노라고 끼니를 넘기며 밤을 새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흩어진 100여 마리의 돼지를 모았고 4톤의 휘발유, 뜨락또르, 탈곡기를 비롯한 100여점의 농장 재산을 거두었습니다.

리 찬화 어머니와 농장 일'군들의 애국적 힘에 의하여 원쑤놈들에게 짓밟혔던 농장은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넓고 기름진 땅우에 활개를 펴고 일어선 농장에서 어머니는 돼지를 기르는 일을 맡아 보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어머니에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편편하게 자라던 돼지들이 갑자기 돌림'병에 걸려 들어 누웠습니다. 어머니가 가까이에 가면 인사를 하듯 코'소리를 내던 돼지들이 주둥이를 땅에 박고 앓음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병에 걸렸을 때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병 든 돼지들을 다른 돈사에 옮긴 다음 수의의 힘을 빌어 성한 돼지에게 소독과 예방 주사를 놓았습니

다. 낮에는 들판으로 내보내여 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로력으로 이해 돼지의 돌림'병은 완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닥친 곤난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봄, 돼지들은 다시금 백리'병에 걸려 들어 눕게 되였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죽는 률이 제일 심한 새끼 돼지를 맡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집을 돈사 가까운 곳에 옮기고 밤 낮 새끼 돼지를 돌보았습니다. 사료는 먹기 좋게 따로 죽을 끓여 먹였으며 창구멍을 막아 바람이 새여 들지 않게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수의에게서 받는 약외에도 다른 약을 더 구하기 위하여 무척 애를 썼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돼지의 백리'병에 무접풀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일하는 짬을 타서 얻기 힘든 무접풀을 얻어다 엿을 다려 병든 새끼 돼지들에게 먹였습니다. 밤에도 곁을 떠나지 않고 병든 새끼 돼지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50여마리의 병든 새끼 돼지들을 백리'병에서 구했으며 그후부터 농장에서는 한 마리의 돼지도 백리'병에 걸려 죽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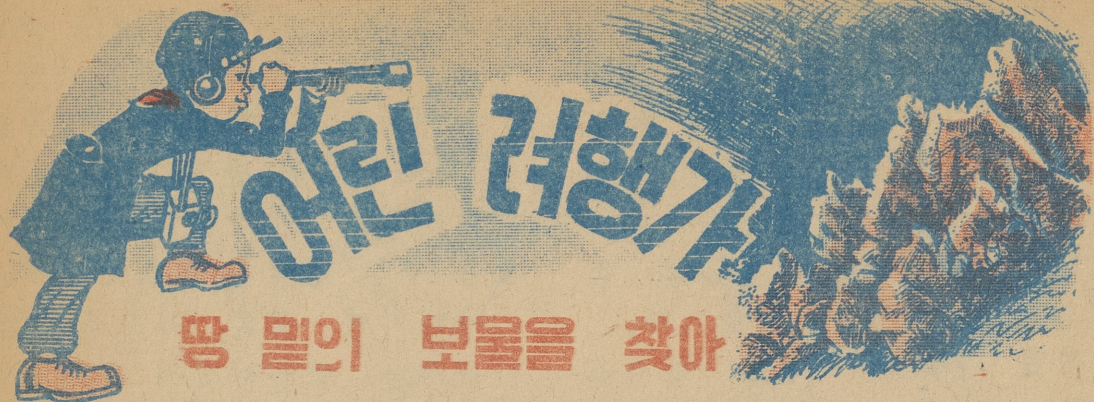
어머니는 병든 가축을 돌보는 한편 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생각해 낸 끝에 사료를 주는 방법을 고쳤습니다.

이리하여 곡물 사료를 47% 이상이나 절약하면서도 돼지를 살찌게 하여 그의 무게를 121%나 높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성과 힘을 가축을 기르는 일에 바침으로써 어머니는 작년에만도 어미돼지 11마리와 새끼 돼지 100마리를 맡아 보면서 한마리도 죽이지 않고 길러 냈으며 새끼돼지 생산 계획을 9월말 현재로 155%로 넘쳐 달성하였지요.

* * *

어머니의 이야기를 수첩에 받아 쓰던 소년단원들은

《참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힘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어머니로구나…》 하고 저마다 가슴 속에 웨쳤습니다.

나의 즐거운 려행은 계속됩니다.

나는 이번에는 보물로 가득 찬 우리 나라의 땅 속으로 려행하렵니다.

청천강 우를 날고 있던 내가 내린 곳은 청천강 기슭에 있는 안주 탄광이였습니다.

나는 굴 속으로 들어 가는 로동자 아저씨들과 함께 탄차를 타고 석탄이 있는 곳으로 찾아 갔습니다. 새까맣게 생겼으면서도 반짝반짝 빛을 내는 〈돌〉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석탄을 많이 조국에 주자》하고 한 젊은 로동자 아저씨는 그것을 한줌 쥐여 보며 석탄 부문 일'군들을 우대할 데 대한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배려에 보답할 결의를 다지는 것이였습니다.

곧 나는 석탄과 이야기하였습니다. 수첩을 꺼내 들고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선물이 될만 한 것들을 분주히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석탄〉은 금, 철, 흑연과 함께 우리 나라의 땅 밑에 있는 4대 광물의 하나입니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유연탄과 무연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알려진 것만 하여도 묻혀 있는 량이 유연탄은 6억톤 무연탄은 14억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연탄은 함경북도 철도 연선에 많으며 그 가운데서도 아오지, 회령은 큰 유연탄광입니다. 아오지에는 석탄에서 석유를 짜내는 인조 석유 공장이 있어 유연탄이 더욱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연탄은 평안남도의 북부 및 남부 탄전에 많이 있습니다. 삼신, 사동 탄광 등은 품질이 좋은 무연탄이 나는 곳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무연탄은 화력이 세고 연기가 나지 않으므로 공장과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몸이 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석탄》은 나에게 《금나라》로 가는 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나는 그 길로 《지팽이》를 돌렸지요. 그랬더니 환히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을 따라 북쪽으로 한참 걸었더니 정말 땅 밑은 눈부시였습니다.

《어린 려행가 동무!》하고 《금》은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하고 내가 물었더니 《운산, 대유동입니다》라고 《금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이였습니다.

《금할아버지》는 자기의 슬픈 이야기부터 한 토막 해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 인민들이 한때 외래 침략자들에게 억눌려 불행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우리 〈금〉들도 슬픈 이야기가 많았단다. 글쎄 제나라 인민들에게 리용되지 못하고 미국 강도놈들과 일본 강도놈들에게 도적 맞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구나! 남쪽 땅에서는 아직도 우리 벗들이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에게 도적 맞는 험한 세상이라니 참을 수 없는 일이야!》.

《금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조국과 인민에게 리용되는 자기의 기쁨과 자랑을 들려 주었습니다.

금은 우리 나라에서 운산, 대유동, 성흥에서 가장 많이 나며 의주, 신연, 수안, 옹진 등 광산에서도 많이 납니다.

금은 우리 나라의 어디에나 묻혀 있습니다.

《금할아버지》와 헤여져서 초산, 강계 지방으로 길을 다시 떠났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연필알 냄새가 풍겨 왔습니다. 나는 땅 속에도 연필 공장이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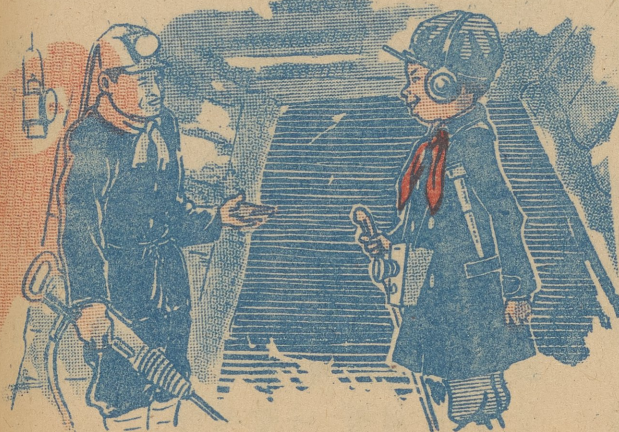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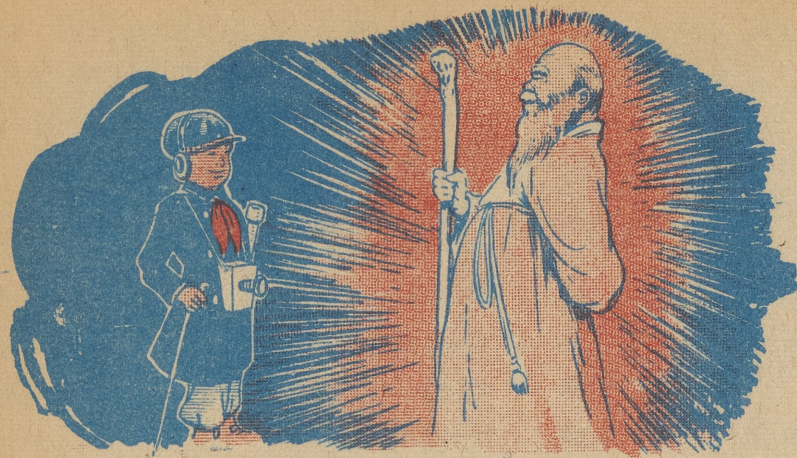
《놀라지 마십시요. 어린 려행가 동무! 우리들은 소년단원들의 친한 벗이요. 나는 광석을 녹여 쇠'물을 뽑을 때 쓰는 코크스의 원료도 되고 소년단원들이 공부할 때마다 쓰는 연필도 나를 가지고 마드니까요!》하고 흑연이 먼저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려행가 동무! 우리

나라 땅 밑에는 연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흑연이 있다고 소년단원들에게 전해 주어요. 세계에서 우리 나라는 흑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동무들의 학교와 가정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자!》 고 하면서 《흑연》은 나의 길을 또 안내해 주었습니다.

나는 인민 경제 건설에 얼마든지 필요한 철이 우리 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알고 싶었습니다. 두만강 상류에 거의 다달았을 때 나의 앞길에는 철벽이 다가서는 것이였습니다. 바로 여기가 내가 오고 싶어하던 무산 철광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철광인 이 무산 광산에는 10억톤 이상이 묻혀 있습니다.

《무쇠 아저씨! 무쇠 아저씨의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소년단원들이 몹시 알고 싶어 합니다》 하고 나는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은 려행할 때 기차를 타지요. 그 기차도 기차가 달리는 레일도 우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년단원들이 과학을 배울때 쓰는 실험 기구도 학용품도 우리들이 있어야 만들수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이곳에서 캐여진 철광석이 김책 제철소로 실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철소로 간 철광석은 무쇠로 되여 다시 제강소, 기계 제작소 등으로 가서 여러가지 기계와 기구들이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니 한 없이 기뻤습니다.

나는 이번 려행에서 200 여종의 광물과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130여종은 리용할 수 있는 광물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소년단원들에게 땅 밑의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 바삐 전하고 싶어 땅 우로 올라왔습니다.

참으로 땅 밑의 려행은 즐거웠습니다. 우리 나라는 보물로 가득찬 나라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땅 밑의 보물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캐내여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꽃피우기 위하여 열심히 배워 나갑시다!

리태한 영웅의 어린 시절

박 경 출

자기의 나이를 속이고 열 일곱살에 의용군에 참가한 리 태환 형님은《신발고지》의 전투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 열 여덟살에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형님은 이 전투에서 왼 쪽 다리와 어깨와 넙적 다리에 중상을 입고도 끝까지 난관 앞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적들의 포위속에 들었던 전우들을 구원하고 미군 93명을 쓰러 눕히고 중기세문을 짓부셔 놓았습니다.

영웅 형님의 이러한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성,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것은 벌써 어려서부터 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 * *

경상북도의 형님의 고향은 경치가 좋고 실과들도 많이 열리고 땅은 기름져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일제와 지주놈들의 착취를 받았으며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 갔습니다.

태환 형님네 집에서도 어머니가 손톱이 빠지도록 삯 바느질을 하고 형님도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도와 추운 겨울에 산에 가서 땔나무를 해오면서 온 집안이 하루도 쉬지 않고 피땀을 흘렸어도 아침 저녁 멀건 죽을 쑤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형님은 벌써 어려서부터 가난한 농민들을 못살게 구는 지주놈들을 몹시 미워하였습니다.

소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태환 형님네 학급에서는 산수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공부를 열심히 한 그는 시험 문제를 쉽게 풀고 척척 답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곁에는 경찰 서장의 아들 룡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룡덕이는 좋은 옷을 입고 우쭐대기는 했지만 공부는 아주 못하는 바보였지요. 그래서 그는 이 시간에도 형님의 답안을 힐끔힐끔 넘겨보며 베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였습니다.

룡덕이놈은 형님의 답을 꼭 같이 베낀 것이 선생님에게 들킬가 두려워서 형님 몰래 선생님을 찾아 가 태환이가 자기 답을 베꼈다고 거짓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선생님에게 불리워 갔습니다.

《넌 왜 남의 답을 베꼈어?》.

《전 그런 일이 없어요》.

《용덕이가 그러는데 뭘 거짓말 해》.

형님은 몹시 분하였습니다.

《선생님! 용덕이놈이 제행 베꼈어요》.

《무엇 용덕이가 베꼈다구?》.

선챙님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이때 형님은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를 못 믿겠거던 지금이라도 문제를 내십시요》.

《…………》

선생님은 형님 앞에서 더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태환 형님은 집으로 돌아오던 길'가에서 룡덕이놈이 잘못을 빌 때까지 반죽음이 되도록 때려 주었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경찰 서장이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아니》.

태환 형님의 이러한 행동은 보통 아이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였지요.

그것은 경찰 서장놈이 성을 내면 큰 변이 날 것이였기 때문이지요.

아닌게 아니라 이날 저녁 룡덕의 어머니가 잔뜩 성이 나서 태환이네 집에 쫓아 왔습니다.

그러나 태환 형님은 조금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남의 걸 베낀 것만 해두 죄가 큰데 또 거짓 고자질까지 하구…… 그런 아들을 나무라지는 않구, 되려 날 혼내려구요? 어머니두 다 똑 같군요?》하고 오히려 쏘아 말했습니다.

어린 태환 형님이 너무나도

정당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룡덕의 어머니는 대'구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서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 * *

태환 형님은 열두살때에 8•15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남 조선에는 왜놈 대신에 미국놈과 리승만 역도놈들이 기여 들어와서 인민들을 더욱 못살게 굴었습니다.

원쑤들을 몹시 증오한 태환 형님은 열 세살 때에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난 인민 항쟁에 어린 용사로 참가했습니다.

태환 형님은 로동당원인 자기 형님의 뒤를 따라 도끼를 들고 군 경찰소로 뛰여 갔습니다. 태환 형님은 자기 형님과 함께 캄캄한 경찰서 뒤 담벽 밑에 숨었다가 인민들의 항쟁에 겁을 먹고 뒤로 도망 치는 순경놈의 등때기를 도끼로 내려 쳤습니다. 순경놈은 총을 내 동댕이 치고 꺼꾸러졌습니다.

인민들이 사흘 동안이나 경찰서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 태환 형님은 빼앗은 총으로 사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다시 반격해온 원쑤놈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형님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넌 그만 두어라! 재빨리 뛸 수도 없고 힘도 없지 않니?》.

형님은 그를 몇번이나 달래였습니다.

《형님 뒤를 얼마든지 따를수 있어요. 형님 내 걱정 말아요》.

이리하여 그는 끝까지 항쟁에 참가하고야 말았습니다.

태환 형님은 이리하여 원쑤들에게서 빼앗은 총으로 놈들을 세놈이나 쏘아 죽였습니다.

형님은 이때 한데 뭉친 인민의 힘은 반드시 원쑤들을 꺼꾸러 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형님은 더욱 용감하고 대담한 소년으로 자라나면서 의용군에 나갈 때까지 남쪽 땅에서 미제와 리승만 역도놈들과 싸워 왔던 것입니다.

…평양 제 41 민인 학교 대에서…

박 설 희

《나는 조선 소년단원으로서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게 무한히 충성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며…》라고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문을 정성들여 쓰던 정 순희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머리 우에 들고 소년단 경례를 해 봅니다.

며칠 후이면 붉은 넥타이를 매고 번쩍이는 소년단 휘장을 달 자기를 생각하며 한없이 기뻐합니다.

순희는 정성껏 쓰던 맹세문을 다 써 놓고 군익 오빠한데 왔습니다.

《오빠 난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문을 다 썼어!》.

《응 깨끗이 썼어?》하고 산수 숙제를 열심히 풀던 군익 동무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동생을 쳐다 봅니다.

《오빠 난 서약식 날엔 새 옷을 입구 갈테야……》.

《야! 순희는 얼마나 좋아! 새 옷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휘장까지 달면 훌륭한 소년단원이 될테지》.

군익 동무는 사랑하는 어린 동생에게 이야기 해줍니다.

전번에 학교 대 위원회에서 어린 동생들을 소년단에 입단시킬 데 대한 계획을 의논할 때 군익 동무는 자진해서 자기 동생 순희의 입단을 준비시키기로 약속했지요.

*　　　　*

아침 학교 갈 시간이 되여 군익 동무와 순희는 손목을 잡고 씩씩하게 학교로 갑니다.

《오빠! 소년단 인사할 때 〈준비하자!〉 라고 왜 하나?》.

《응 그건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를 어데서나 실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다》 라고 대답하는 군익 동무의 목소리는 퍽 다정스럽습니다.

《순희야! 네가 손꼽아 기다리는 입단 서약식 날엔 어머님도 학교에 오실거다》.

《아이구 기뻐!》 순희는 깡충깡충 뛰기까지 합니다.

《나도 소년단에 입단할 때 참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

이렇게 말하며 순희를 쳐다보던 군익 동무는 《소년단원이 되면 소년단원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해!》.

《그럼 나도 오빠처럼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고 로력을 사랑하고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분단의 일을 잘 하고………》

《응, 그래. 그리고 소년단원은 언제나 정직하고 동무들과 항상 친하고 서로 도울 줄 알아야 하지》 라고 군익 동무는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때껏 명랑하던 순희가 별안간 새침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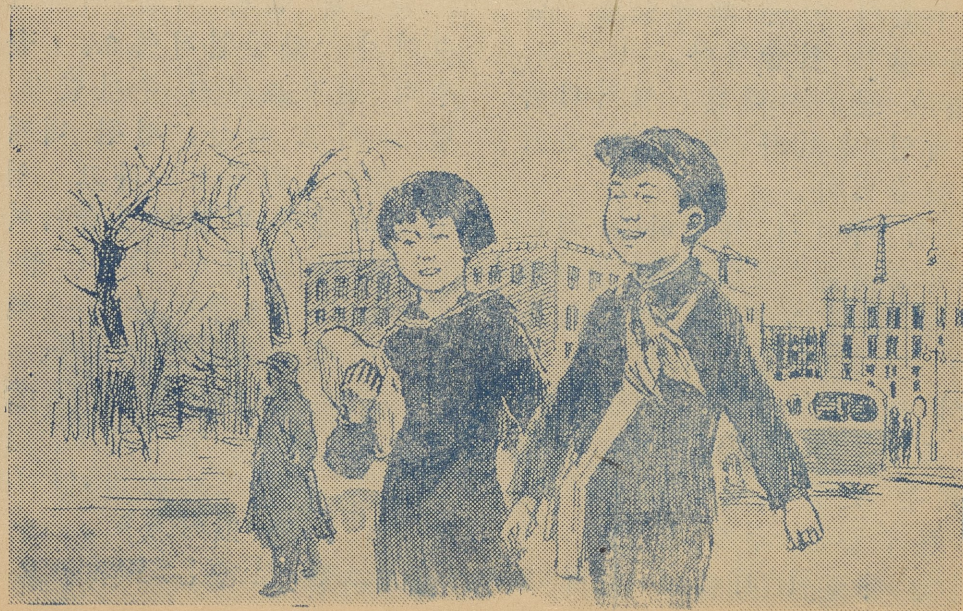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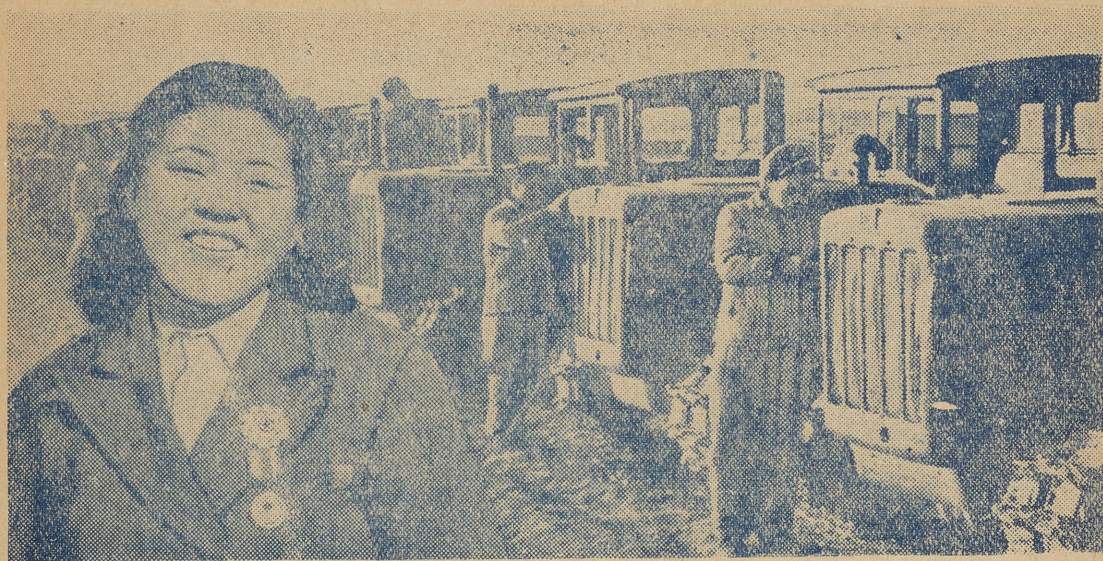
《너 왜 그러니—》 군익 동무는 순희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순희는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언제나 고집이 센 순희는 동무들과 놀다가도 언짢으면 말다툼을 잘 했지요.

며칠 전에도 순희는 얼음판에서 금자와 놀다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옥신각신 했습니다.

《순희야! 지난 날엔 동무들과 친절하지 못했어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소년단원이 될 수 있어!》

그제서야 말이 없던 순희는

《오빠! 앞으로 언제나 동무들을 사랑할테야—》 라고 웃음을 띈 얼굴로 봄 바람에 날리는 오빠의 붉은 넥타이를 바라보며 명랑하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뜨락또르 운전사 언니를 찾아

…조선 소년단 평북 운전 인민 학교 대 1분단 2반에서…

신 진 균

봄갈이를 앞두고 국영 정주 농기계 임경소의 뜨락또르 운전사 오빠 언니들은 뜨락또르 정비에 한창 바삐 서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공부를 끝마친 반 동무들이 이곳 뜨락또르 임경소를 찾아 왔습니다.

그들은 곧 지배인 아저씨와 함께 책임 운전사 최 성일 언니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자기의 사랑하는 제10호 뜨락또르의 시운전을 끝내인 최 성일 언니는 어린 손님들을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이 언니가 바로 우리 임경소의 모범 운전사입니다》라고 아저씨는 소개해 주시였습니다.

반 동무들은 국기 훈장과 공로 메달 략장이 가슴에 달려 있는 부러운 뜨락또르 운전사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습니다.

《언니, 올해의 봄갈이는 언제쯤 시작되나요》하고 은숙이가 먼저 물었지요.

《그래 인제 며칠 지나면 봄갈이가 한창일거예요. 올해엔 우리 임경소에서 운전벌과 정주벌 그리고 곽산, 선천 네개 벌을 갈게 되지요》라고 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땅을 언제 다 갈아요?》하고 은숙이는 놀라면서 또 물었습니다.

《물론 동무들은 놀랄 것입니다. 참 많은 땅이지요. 그러나 16대의 뜨락또르로 45일이면 죄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언니! 뜨락또르는 하루에 몇평의 땅을 가나요?》. 반 동무들은 저마다 뜨락또르의 힘을 알고 싶어했습니다.

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내가 운전하는 이 뜨락또르만 해도 하루에 4만—4만 5천평의 땅을 갈아 번진답니다》.

《아유! 4만 5천………》. 반 동무들은 깜짝 놀래여 소리 쳤습니다. 반 동무들은 소 한마리가 보습으로 간다면 하루에 700—800평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들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였지요.

《그러면 언니가 운전하는 이 뜨락또르는 보습으로 가는 것보다 50배나 더 가는 셈이지요》하고 누구인가 재빨리 계산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뜨락또르는 보습보다 하루에 50배 이상이나 되는 땅을 갈아 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뜨락또르는 논갈이에서 깊이도 18～20cm나 깊이 갈므로 보습으로 갈기보다도 낟알도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하지요》라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는 것이였습니다.

뜨락또르의 힘과 우리 나라 농촌이 더욱 발전될 앞날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은숙이는 언니에게서 뜨락또르 운전사가 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요. 그래서 《언니, 그런데 언제부터 뜨락또르를 운전하게 되였나요?》하고 물었습니다.

《1951년 가을갈이 때부터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난 언니는 운전사로 되기 전 지난날의 생활을 이야기하여 주시였습니다.

언니는 가난한 농사' 집 딸로 태여났답니다. 해방 전 언니네 집에서는 해마다 지주놈에게서 갖은 착취와 천대를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었지요.

8•15 해방을 맞이하고 9,000평의 토지를 분여 받은 그때로부터 언니네 집엔 행복에 가득찬 새 살림이 꽃피게 되였답니다. 그리하여 언니는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난 우리에게 새 살림을 갖다 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훌륭한 땅의 일'군이 되겠어요》하고 말하면서 집

의 농사 일을 도와 나섰답니다.

언니가 18세 되던 해였습니다.

평북 룡천군에 농업성 뜨락또르 기술원 양성소가 설치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언니는 곧 남자들과 같이 이 기술원 양성소에 들어 갔습니다. 남자들과 함께 복잡한 기계를 다루며 뜨락또르의 운전 기술을 배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우수한 뜨락또르 운전사가 되여 나라에 더욱 보람있게 이바지하리라고 마음을 다져가며 꾸준히 기술을 배워 나갔답니다. 그리하여 언니는 훌륭한 녀성 운전사로 되였습니다.

어려운 전쟁 시기에는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밤을 새워 가면서 한치의 땅도 남기지 않고 이 운전벌을 갈아 엎었고 지난해에는 자기의 책임량을 157%로 넘쳐 갈았다는 것이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한참 소년단원들을 바라보던 언니는 운전대에 올라 앉으면서 《나는 매일 사랑하는 뜨락또르와 함께 무연한 넓은 벌판을 힘차게 내달릴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군해요. 매일 책임량을 넘쳐 끝내고 하루 동안 갈아 엎은 무연한 벌판을 바라 볼 때처럼 기쁜 때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뜨락또르 운전사가 된 것을 정말 영예롭게 생각하지요》 라고 하시면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띄우시였습니다.

반 동무들은 뜨락또르 운전사 언니가 몹시 부러웠습니다.

《언니 우리도 뜨락또르 운전사가 될 수 있나요?》. 곁에 섰던 혜숙이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럼 있구 말구요. 훌륭하게 공부만 하면 장차 우리 나라의 우수한 뜨락또르 운전사도 되고, 과학자, 기술자로도 될 수 있지요. 동무들이 뜨락또르 운전사가 될 때면 우리 나라 농촌은 더욱 더 발전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 동무들은 우리 나라 농촌의 보다 행복해 질 앞날을 머리에 그리며 장차 우수한 기술자, 과학자가 될 것을 굳게 마음 속에 다지였습니다.

왜 지각을 했을가요

박 정 렬

제3 학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여러 날이 되였습니다.

따뜻한 봄철을 맞이한 제2 분단 동무들은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호선 동무만은 새 학기에 들어와 지각을 해서 동무들의 수업에 방해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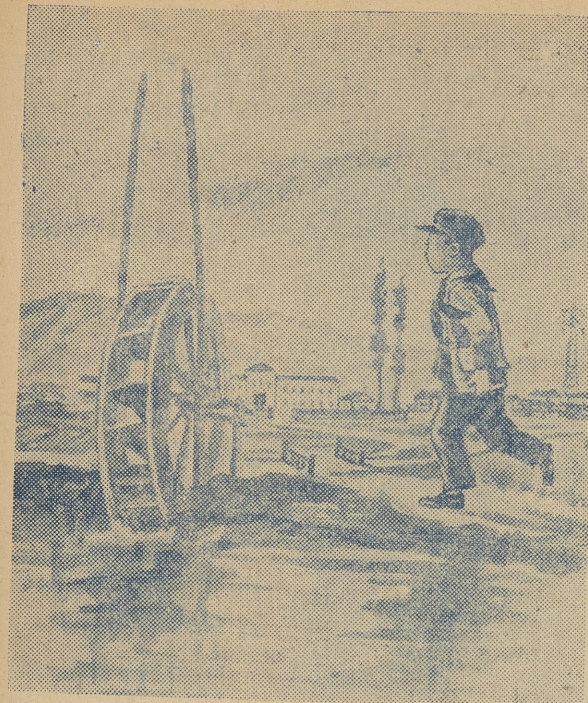
그래서 동무들은

《호선아! 넌 늦잠을 자는 모양이지?》.

《내가 늦잠을 자는 줄 알아, 어머니가 밥을 늦게 지어 주어 그런거지 뭐》.

호선 동무는 제법 뻐젓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보고 잘 이야기 하렴》.

《누가 말 안하는 줄 알아》.

호선이는 오히려 자기 일을 걱정해 주는 동무들을 꾸지람 주듯이 대답하군 했습니다.

* * *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또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호선 동무는 책을 대충 갖춰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침 해'살이 활짝 펴오르는 들판을 바라보며 활개치던 호선 동무는 길 옆 개울에서 고기가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버들치다. 제법 큰데》.

호기심을 가진 그는 책보를 길'가에 놓고 신발을 든채 물에 들어섰습니다. 아직도 개울물은 차거웠습니다. 그러나 고기잡이에 신이 난 호선 동무는 신발을 쥐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고기를 잡으려고 갖은 애를 썼답니다. 버들치는 그만 돌 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건 틀림 없지》 중얼거리면서 돌을 들추고 버들치를 잡아낸 호선 동무는 길'가에 나와서 신발을 신으며 해를 쳐다 보았습니다.

《야 큰 일 났는데》.

그는 일찌기 밥을 지어 주며 지각하지 말라던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뛰여 갔습니다. 운동장은 조용했습니다.

숨이 하늘에 닿을듯 헐떡거리면서 교실 문을 녹크하고 교실안에 들어 갔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던 동무들은 일제히 호선 동무를 쳐다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나, 개울에서 고기를 잡다가 늦었다면 책망하실텐데—》 하고 마음을 조이던 김에

《아침 밥이 늦어져서 지금 왔습니다》라고 요전에도 동무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묻기도 전에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잠간 말이 없이 호선 동무를 내려다 보시던 선생님은 웃음띈 얼굴로

《그럼 좋습니다. 어머니보고 잘 이야기해 줄테니 다시는 늦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호선 동무는 선생님이 집에 오실가 두려워서

《아니예요, 지금 어머니가 앓아 누우셨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그의 동무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도 호선 동무의 어머니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였지요.

그러나 선생님은 호선 동무에게 더는 물으려 하지 않고 어머니의 병을 걱정해 주시면서 그를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호선 동무는 냉큼 자리에 가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산수 응용 문제 풀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윽고 하학종이 울렸습니다.

선생님이 나가시자 동무들은 모여 서서

《얘들아! 호선이는 거짓말을 했어. 어제 저녁만 해두 어머니는 일하시던데 뭐》.

《응 그래 거짓말인 것 같애!》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때 분단 위원장인 진종 동무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호선 동무의 어깨를 잡으며

《얘 호선아, 정말 너의 어머니가 앓고 계시니?》하고 물었습니다.

호선 동무의 가슴은 울렁거렸지요. 더는 거짓말 할 수 없이 된 그는 머리를 숙인채《난 거짓말을 했어.선생님이 책망하실것만 생각하구……》.

《그럼 선생님을 찾아가 이야기해야지, 오늘 선생님은 호선이네 집으로 가실텐데…》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호선 동무는 더욱 어쩔 줄 몰라했지요.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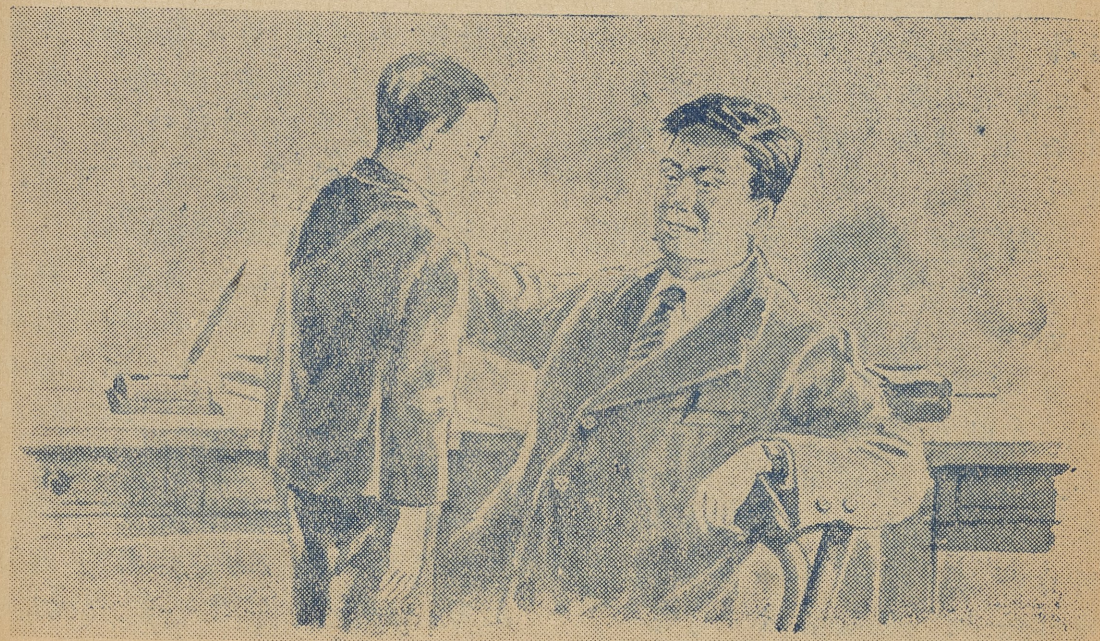
그의 머리는 점점 숙으러졌습니다. 동무들도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호선 동무는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방과후 선생님에게 용서를 바랄테야—》.

이렇게 말하고는 책상 우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방과후였습니다. 동무들이 모두 집에 돌아간 때를 기다려 호선 동무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선생님은 호선이를 보자 웬일인지 영문을 몰라 쳐다 보실뿐입니다.

얼굴이 빨개진 그는《선생님》하고 부르고는 그만 용기를 잃고 말았지요.

선생님은 《어서 말해요》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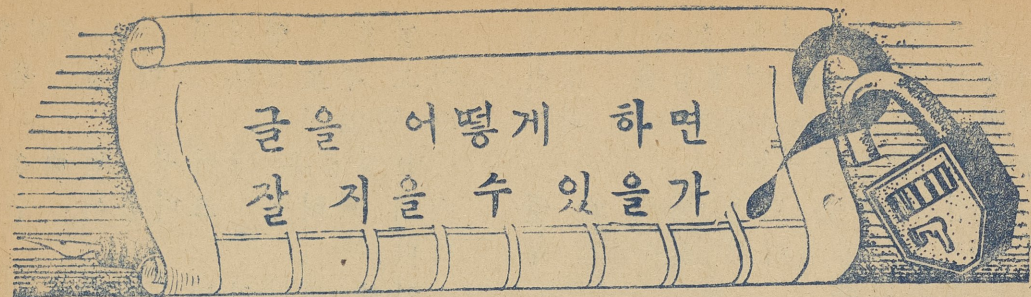
한참 생각하던 호선 동무는 머리를 들고

《전 선생님을 속였어요.거짓말 한다는건 소년단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난 정말 깨달았어요》 하고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호선 동무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선생님은 다정스럽게 웃으시며

《참 훌륭하군! 언제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야 하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될거야—》.

하고 그의 손목을 잡아 주었습니다.

—☆—

리 원 우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지을 수 있을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

우선 동무들에게 글 잘 짓는 비밀을 찾는 열'쇠 하나씩을 주마. 그것은 《모든 것은 노력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열'쇠다. 글 잘 짓는 비밀은 《아는 것이 첫 방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문 안에 있는데 거기엔 《저절로는 되는 법이 없다》라는 이름을 가진 잠을'쇠가 걸려 있다. 노력으로 열지 않으면 영원히 잠겨 있는 잠을'쇠다.

그럼 《모든 것은 노력이다》라는 열'쇠로 한 대문씩 열고 들어 가자.

☆참다운 소년이 되여야 한다

좋은 글을 짓기 위하여 우선 보고 듣고 느껴야 할 것이며 그 느낀 것을 옳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훌륭하게 느껴야만 더 잘 판단할 것이며 그래야만 더 아름답게 행동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답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넓고 깊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 학습을 잘 하며 공동 재산을 사랑하며 규률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로력을 사랑하며 로인들을 존경하고 동무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동무들은 더 잘 보고 더 훌륭하게 느끼고 더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며 더 훌륭한 생활을 할 것이니만큼 글 쓸 내용부터 우선 훌륭할 것이다.

그럼 또 한 대문 들어 가자.

☆ 무엇을 글로 지을가?

그럼 더 잘 보고 느끼고 행동하기 위하여 동무들은 가까이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여라. 동무들이 살고 있는 집도 날마다 공부하는 학교도 소년단 생활도 이웃집 이야기도 공장 아저씨도 네거리도 애순이 이야기도 협동조합 아저씨 이야기도 영웅 형

님도 집에 있는 라디오도 모두 글을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동무들의 가까운 곳엔 얼마나 보고 느낄 것이 많으냐? 동무들은 동무들과 가장 가까운 것들을 글로 써 보라. 다시 말하면 동무들이 잘 아는 것을 쓰라는 말이다. 또 한 대문 들어 가자.

☆ 어떤 글을 지을가?

글의 종류엔 시, 소설, 희곡 등 문학에 속하는 글도 있고 일기문, 편지 글, 감상문 등 작문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글도 있다. 또한 자연 과학의 글도 법률과 기타 종류의 글도 있다.

동무들은 작문을 많이 써야 한다. 작문은 이다음 작가가 되려고 희망하는 아이들이나 또는 자연과학자,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나 누구나 련습해야 되는 그런 글이다. 그렇다고 동요 같은 글을 쓸 수 있는 동무들에게 동요를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그럼 또 한 대문 들어 가자.

☆ 준비할 두 과업

보고 느끼고 판단한 그것들이 글로 써 놓기 전에는 아직 동무들의 머리 속에 있다. 이것을 글자로 받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을 많이 알기 위하여 힘쓸 것이다. 여름에 동무들은 곤충 식물을 채집한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하여 말 〈채집〉도 하여라. 어른들이나 동무들이 주고 받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국어책에 있는 말과 이야기책, 동요, 동시, 소년 소설들을 싣은 책들에서 말을 모으라. 아름다운 말과 표준말을 골라 내여라.

둘째로 말을 받아 쓰는 글'자로 변한 말—즉 국문을 잘 읽고 정확히 쓸 수 있게 공부하여라. 그리고 글'자로 변한 말로 문장을 만드는 련습을 하여라.

훌륭한 내용이라도 문장을 잘 꾸며야 빛나는 것이다. 그럼 련습을 해 보자.

《아이구 허리야》

하고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나 종이에 《아이구 허리야》 한마디만 쓴다면 누가 알아 보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글을 잘 지으려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을 차례로 써 보는 련습을 하여라.

《아버지는 콩 가마니 두 짝을 지고 걸어 갔습니다. 나는 그 뒤로 빈 손으로 따라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빨리 걷지 못하였습니다. 땅에서 발이 겨우 떨어지군 하였습니다. 아마 퍽 무거우신 모양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씨근씨근 가쁜 숨을 쉬였습니다. 나는 어쩐지 빈 손으로 걸어 가는 것

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때 아버지께서

〈아이구 허리야〉

하고 말씀하시며 짐을 벗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콩 가마니 두 짝을 질 수 없는 아이라는 것도 잊어 버리고 〈아버지 이번엔 내가 좀 지고 갑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동무들, 이 글에서 아이가 본 것은 무엇인가? 그 것은 콩 가마니 두 짝을 지고 가는 아버지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잘 보았는가? 땅에서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잘 보았다. 그러자 아이는 무슨 느낌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 느낌은 무엇으로 발전하였는가?

《무겁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였고 빈 손으로 가는 자기를 《죄송스럽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이구 허리야》 하고 말하며 짐을 벗어 놓을때 그 느낌과 그 판단은 자기가 콩 가마니를 질 수 없는 아이임을 잊어 버리고 그 짐을 제가 지겠다는 행동으로 나왔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알기 쉽게 차례로 쓰니까 문장이 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걸어 가는 이야기를 맨 처음에 쓴 리유는 어데 있을가?

그것은 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본 것을 첫머리에 썼다.

글을 지을 때에는 이렇게 먼저 쓰고 뒤에 쓸 것을 골라야 한다.

우의 글을 동무들 중에 누가 지였다면 그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많고 애국심이 강한 소년일 것이다.

좋은 글을 짓는 련습을 하면서 점점더 훌륭한 사람으로 동무들은 자랄 것이다.

또 한 대문 들어 가자!

☆ 동무들의 말로 쓰자

동무들은 자기 생활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 냄새가 나는 자기 말을 가지고 써야 할 것이다. 어른들의 말은 아이들의 말에 비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 속에서 울어 나오는 말들이다.

그러나 동무들의 말은 동무들의 생활 경험과 동무들의 지식 정도와 느끼는 정도 안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러기에 동무들은 어른들의 말을 흉내 내여 가지고 쓴다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대 여섯 살 난 아이가 아버지 양복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다.

동무들의 말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동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동무들은 새롭고 좋은 것을 느끼고 받아 들이는 힘이 강하다.

동무들은 유명한 과학자나 영웅들처럼 되려고 한다. 혹은 비행사가 되여 훨훨 날아 보는 훌륭한 공상도 한다.

이것이 동무들의 특성이다.

동무들에게는 희망과 공상이 많다.

공상은 동무들의 생활에서 솟아나 마침내 과학의 길로 간다.

동무들은 아름답고 훌륭한 동무들의 공상을 가지고도 글을 써 보아라.

☆ 마지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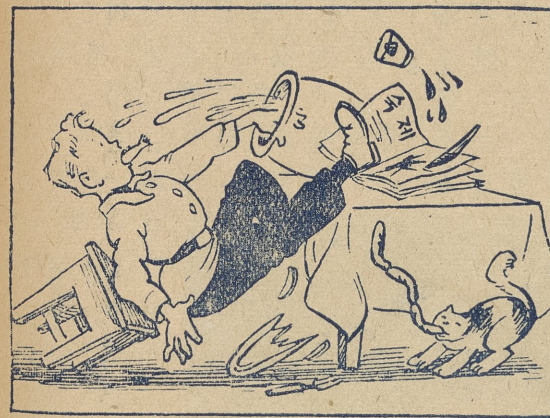
아직 열어야 할 대문은 많다.

그러나 많은 대문을 어떻게 단번에 열 수 있겠는냐? 인민학교에서 열어야 할 대문도 있고 초중, 고중, 대학에서 열어야 할 대문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민 학교 동무들을 위하여 연 대문 들이다.

〈만 화〉 세가지 일을

나는 단꺼번에 세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숙제도 하고 고기도 먹이고 나도 먹고…

단꺼번에…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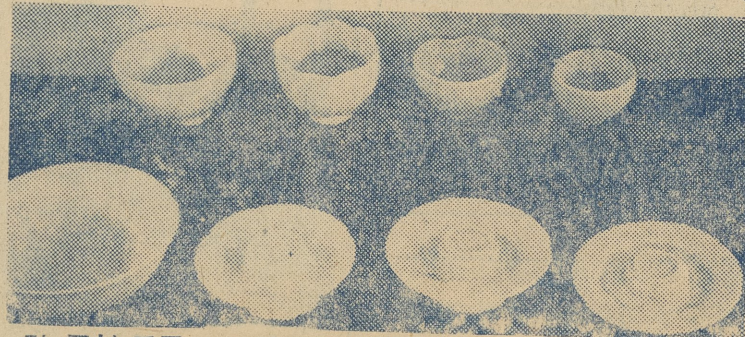
《삐오네르쓰까야 쁘라우다》에서 전재

내가 찾아낸 고려자기

작년 가을에 나는 우리 마을 뒤'산에서 고려 자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날 력사 시간에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개성은 옛날 고려의 서울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도시 부근에는 귀중한 유물들이 땅 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이 근방의 산들을 주의 깊게 살펴 보십시요》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우리 마을 뒤'산을 지날 때마다 모든 것을 유심히 살펴 보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뒤'산에서 놀다가 지난 전쟁 시기에 전호를 파 올린 흙 무데기에서 무엇인가 반짝거리는것을 보았습니다.

《아. 저것이 무엇일가?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파란 자기 쪼박이였습니다.

《이상한데! 지금 우리가 쓰는 사발들은 이런 색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고 생각한 나는 주의 깊게 근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멀지않은 곳—허무러진 전호의 벽 언저리에 퍼런 사발 한 끝이 비죽히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도 상하지 않은 퍼런 사발이였고 그 옆에는 또 술잔 4개, 잔'대 3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곧 선생님에게 가져다 뵈여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이것이 고려 자기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후 박물관의 선생님들이 이것을 연구 조사해 본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전 유물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김 종선 동무가 발견한 고려자기(개성 력사 박물관에서)

개성시 덕암 인민 학교
김 종선

◁옛 이야기▷

소녀 영희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어머니가 영희라는 외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영희를 사랑하였습니다. 영희는 언제나 쾌활하고 착한 소녀였지요. 그리고 노래도 썩 잘 불렀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귀여운 제비》 또는 《귀여운 나비》 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이 마을에는 흉년이 닥쳐 왔습니다. 이리하여 가난한 농민들은 지주에게서 종자를 꿔야만 하였지요. 영희의 어머니도 봄 종자를 지주에게서 꿀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온 여름 그들은 무더운 해'발 아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였습니다. 종자를 뿌렸고 곡식을 가꾸었지요. 가을이 되자 두 모녀는 풍작 이룬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러나 지주는 농민들의 곡식을 비싼 소작료와 자기에게서 꿔 갔던 쌀에 리자를 붙여 빼앗아 갔고 관리들은 그 나머지 곡식을 몽땅 빼앗아 갔지요.

슬픔과 굶주림으로 영희의 어머니는 병에 걸리여 자리에 눕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고달픔도 잊고 매일 같이 산골짜기와 강'가를 돌아 다니면서 나무 뿌리, 나물, 조개 등을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삶아서 앓는 자기 어머니에게 대접하였답니다. 영희는 풀과 조개들을 가지고 어머니의 입에 맞도록 있는 재간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찬 바람이 모질게 휘몰아 치자 땅은 땅땅 얼고 모든 것은 흰 눈에 덮였습니다. 강물

도 열어 불고 말았습니다.

이젠 영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죽어 가는 어머니에게 대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구해 올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영희는 《어머니, 슬퍼 말아요. 내가 지주에게 가서 쌀을 가져 오겠어요. 꼭 가져 오고야 말테야요. 그는 우리에게서 쌀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말두 말아. 내 딸아! 네가 어떻게 쌀을 가져 온단 말이냐? 지주네 집 뜰 안에도 못 들어 설텐데》.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 올테야요》 하고 영희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곰곰히 생각하다가 지주에게로 달려 갔습니다.

영희는 지주에게 식모로 써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래 네가 어떻게 식모 노릇을 한단 말이냐! 난 네가 어데 서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지주는 소녀의 요구는 들은둥만둥 이렇게 비웃어만 댔습니다. 지주는 사실 영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찌나 뚱뚱 하고 배가 툭 나왔던지…겨우머리를 앞으로 숙인다 해도 자기 배 외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저는 비록 키는 작지만 아주 맛 있는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영희입니다》.

영희의 말에 지주는 또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영희입니다》 지주는 소녀의 흉내를 피웠습니다. 《요놈아. 좀 생각해 봐! 내가 얼마나 큰 양반이냐—. 너희들은 풀을 먹으면서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영희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지주의 두터운 입술로 침이 질질 흐르도록 열심히 이야기하였답니다. 지주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였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러한 음식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곡식을 키우는 사람은 그것을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 줄도 안답니다. 나는 이러한 음식 만드는 것을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나를 식모로 써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는가를 한번 보아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소녀는 청을 했습니다.

《응 그렇다면 일을 시키지— 그러나 내 쌀을 네 어머니한테 가져 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지주는 자기 종에게 소녀를 부엌으로 데려 갈 것을 호령했습니다.

영희는 지주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영희는 사탕도 물고기도 잘게 싼 무와 배추도 사과도 배도……있는 자료를 다 리용하여 아주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지주는 영희가 만든 음식 맛을 보려고 굵은 손'가락으로 음식을 묻혀내서 핥아 보았습니다. 그는 놀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어린 소녀인데 음식을 잘 만들 줄 안단 말이야. 소녀를 료리사로 써야 하겠다》.

이리하여 영희는 지주네 식모로 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녀는 조반을 지어 놓고는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밥을 가져다 드릴가? 밥을 그냥 퍼가지고 갈 수는 없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밥을 가져다 드리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소녀의 머리에는 문득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영희는 밥을 약간 태워 가지고 마른 호박잎 같이 만들었습니다 (밥과줄) 날이 어두어지자 영희는 그것을 숨겨 가지고 어머니가 누워계시는 자기 집으로 뛰여 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이것을 잡수시고 차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이렇게 만든 밥을 집으로 자주 가져 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완전히 나았지요.

영희는 또한 쌀이 떨어진 가난한 집들을 찾아 다니면서 굶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른 호박'잎과 같이 만든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해에 마을 농민들은 다시 지주에게서 종자를 꿔다가 파종하였습니다.

가을이 되였습니다. 이해에는 대풍년이였지요. 그러나 농민들은 올해에도 지주가 모든 쌀을 빼앗아 가면 굶주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 먹을 얼마간의 쌀과 종자들을 감추었습니다. 이때 영희는 모든 마을 아주머니들에게 밥을 마른 호박' 잎 같이 만들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욕심쟁이 지주는 혼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가? 곡식은 몽땅 빼앗아 왔는데 쌀 꾸러 오는 농민들은 하나도 없고 굶주리기는커녕 즐거운 노래까지 부르는 일이 통 모를 일이야…》.

그래서 지주는 농민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종을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몇명의 종들이 마을을 살펴 보았으나 농민들의 집에서는 밥 먹는 것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지주는 다시 영희에게

《마을로 내려 가서 농민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나한테서 쌀을 꿔 가지 않는지를 알아 가지고 와》

마을로 달려 갔다 온 영희는 슬픈 낯을 지으면서 말했지요.

《주인님 농민들은 오직 호박' 잎만을 먹고 있어요—》.

《호박' 잎만을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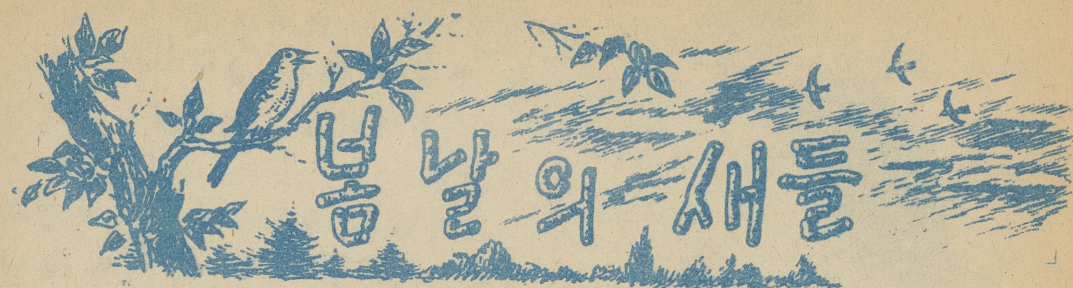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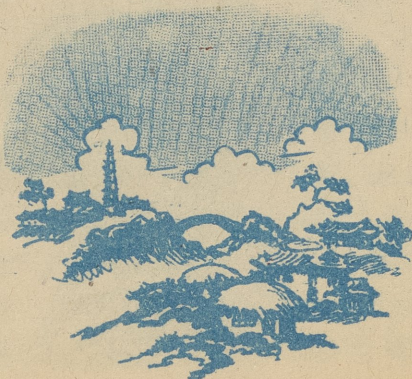
지주는 소녀의 말을 믿지 않고 이번에는 직접 자기가 가보기로 했지요. 그는 도적놈 같이 마을을 살금살금 돌아 다니면서 집집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데로 가나 농민들은 호박' 잎만을 먹는 것이였습니다

지주는 성이 상투밑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기뻤지요. 농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 가면서 종자를 확보했답니다.

이때부터 착취를 받는 농민들은 지주들의 눈을 속여서라도 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마른 호박' 잎같이 밥과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옛날 가난한 우리의 농민들은 자기힘으로 곡식을 가꾸면서도 지주놈들의 착취 때문에 그 곡식을 내놓고 먹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옛날에 있은 일입니다.

소녀 영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일성 종합 대학 동물학 강좌장
과학원 후보 원사 원 홍 구

새들의 생활은 매우 복잡합니다.

즉 새들은 그 종류에 따라 생활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 생활 조건의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새(제비, 할미새 등)는 벌레만 먹고 또 어떤 종류의 새(참새, 방울새 등)는 곡식이나 풀씨를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참새 방울새들은 가을 곡식이 익을 때면 곡식을 먹다가 곡식을 거둬 들인 후에는 가라지, 돌피 능쟁이 씨를 먹고 살므로 일년 내내 한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새들을 《류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벌레를 먹는 새들은 겨울에는 벌레를 찾아 더운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봄이면 날아 옵니다. 이런 새들을 《후조》 또는 《이행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보다 더 추운 씨비리 지방에서 번식한 티티새(그림1) 콩새(그림2) 같은 것은 겨울에 우리 나라에 와서 나무 열매 풀씨같은 것을 먹으면서 겨울을 나서 봄 4월에 다시 씨비리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과 들에서나 혹은 겨울에 보는 새들은 류조와 후조입니다.

티티새는 보통 몇마리씩 무리를 지어 날아 다니면서 겨울에는 나무 우에서나 또는 덩굴 우에서 열매와 종자를 찾고 봄이 되여 땅에 눈이 사라지면 냉큼냉큼 기여 다니면서 닥정벌레를 주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는 떠나 갑니다. 콩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봄에 우리들은 번식할 곳으로 떠나 갈 새와 더운 지방에서 겨울을 나고 오는 새를 볼 수 있습니다. 오고가

티티새

콩새

는 새들은 모두 벌레를 먹는 새들이므로 유익한 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귀한 새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시다.

이제 봄에 일찌기 우리 나라에 들어 오는 새들을 찾아 봅시다.

3월 10일 이후부터 신의주, 룡천 지방에서는 후티티가 펄펄 날아 다닙니다. 꼭대기에 부채 같이 긴 털을 폈다 덮었다 하므로 얼른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밭에 내리면 긴 부리로 땅을 파며 벌레를 잡아 먹습니다.

후티티

이 후티티는 어떻게 번식할가요?

후티티는 룡천, 선천 지방에서는 기와 굾 속에 둥지를 틉니다. 둥지를 틀 때는 풀 줄기를 물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닭의 털을 물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4월이면 둥지 틀기를 마치고 5월 초에는 알 낳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따라서 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알은 5—6개를 낳는데 매일 오전에 한개씩 낳습니다. 알을 품을 때에는 숫놈은 벌레를 물어 암놈에게 줍니다.

알은 품기 시작하여 16일이면 새끼를 깝니다.

두 엄지는 새끼들에게 벌레를 물어다 먹이는데 자세히 살펴 보면 그 벌레들 중에는 거미, 지네, 지렁이 그리고 곤충들인 닥정벌레, 메뚜기, 나비, 파리, 개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는 밭과 삼림에 해로운 해충들을 먹는 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새의 번식에 방해를 주지 말고 잘 보호해 줍시다.

노랑할미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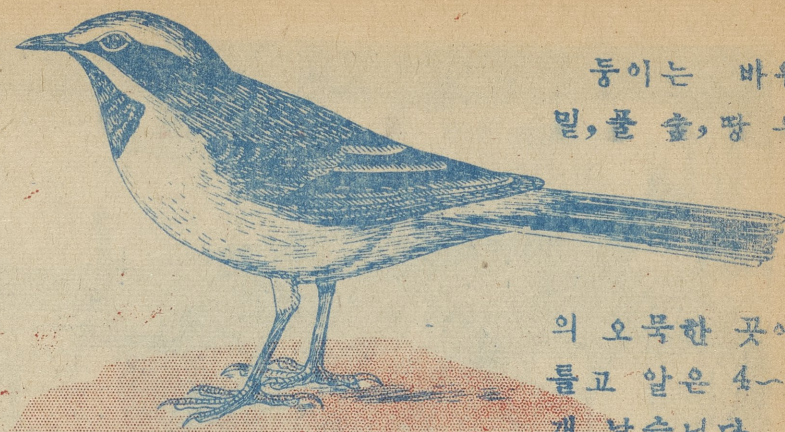
이 새는 9월 초이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중국의 남부 인도 지방에 가서 겨울을 나기 때문입니다.

3월 중순과 하순에는 알락할미새가 푸른 하늘을 고추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바위 돌 우에 앉아 꼬리를 우 아래로 흔들흔들 하다가는 또 논뚝 밭뚝에서 무엇을 부지런히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도 벌레를 잡아 먹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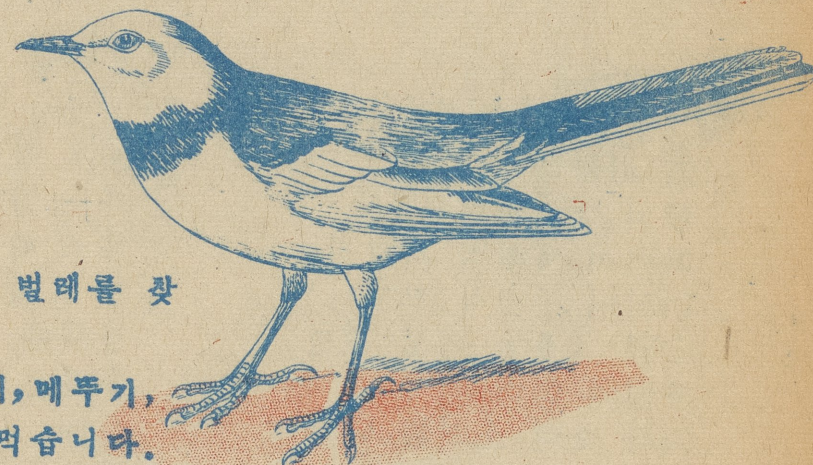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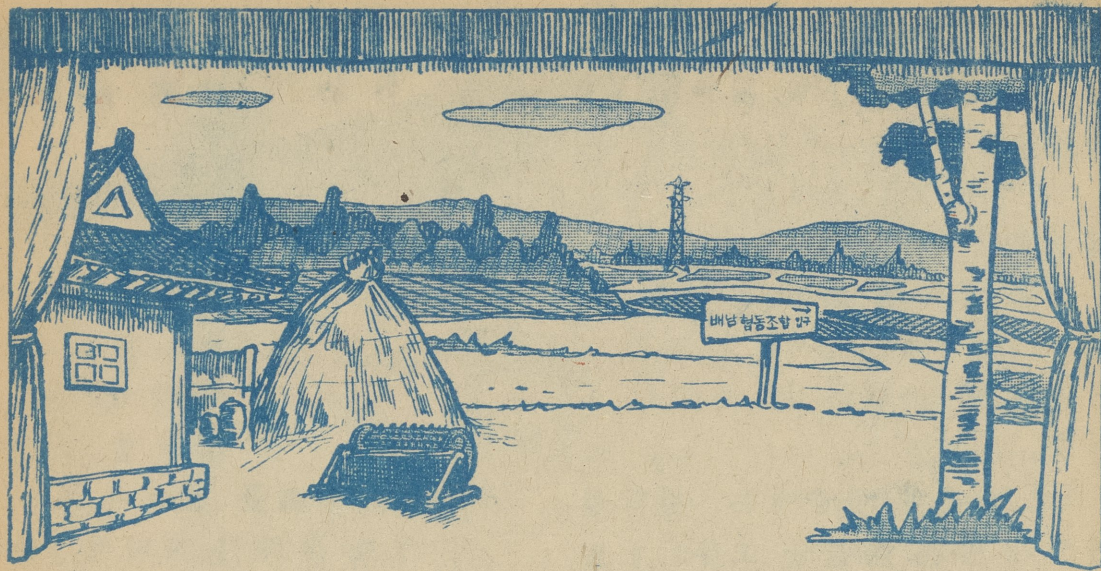
밭갈이 할 때에는 뒤집힌 흙 덩이에서 벌레를 찾아 냅니다.

주로 닥정버레, 파리, 메뚜기, 나비들을 많이 잡아 먹습니다. 이 새는 3월 말 또는 4월 중순에 알을 낳는데 때로는 7월에 두번째 알을 낳기도 합니다.

알을 낳을 때 사람이나 혹은 짐승(고양이, 족제피, 쥐)한테 해를 입으면 다시 딴 곳에 둥지를 틀므로 알을 낳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둥이는 바위 밑, 풀 숲, 땅 우의 오목한 곳에 틀고 알은 4~5개 낳습니다.

알을 품고 12~13일이면 새끼를 깝니다.

이 새도 후티티, 제비와 같이 유익한 새이므로 잘 보호합시다.

둥이를 찾아내면 관찰만 하고 손을 대이지 말고 고양이나 족제피가 해하지 못하도록 가시 나무로 잘 막아 줍시다.

알락할미새

△아동극△

새 마을 (1막)

박 웅 호

때 1954년 가을

곳 협동 조합 마을

나올 사람들

성식 (소년단원)

아버지 (성식 아버지)

어머니 (성식 어머니)

순명 (분단 벽보 주필)

순명의 아버지

기타 소년 소녀들 다수

무대, 왼편에 성식이네 집 일부가 보이고 오른 편에 늙은 느티나무 한그루. 무대 한판은 성식이네 집 뜰안으로 되여 있다. 뜰안에는 벼 낟가리가 쌓이고 탈곡기가 놓여 있다. 무대 안쪽은 행길이고 오른편 쪽에 《배남 농업 협동 조합》이라고 쓴 표말이 서 있다. 무대 중앙을 가로 질러 무연한 논'벌

막이 오르면 늦가을 어느날 오후 뜰안에서 성식이 아버지가 고장난 탈곡기를 수리하노라고 애쓰고 있다. 오른편 협동 조합 탈곡장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자동 탈곡기 소리가 흥겨운 풍년가와 엇섞여 들려 온다.

△학교에서 돌아 오는 소년들 넷이 노래를 부르며 왼편으로부터 나온다.

소년1. (오른 쪽을 손짓하며) 야! 저 봐! 그렇게 많던 벼 낟가리를 벌써 다 탈곡했네.

소년2. 정말 일이 빠르기도 하네.

소년3.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협동 조합에 드니깐 그전

때 혼자서 농사할 적보다 일이 쉽고 빨리 할 수 있다는거야.

소년4. 서로 힘을 합해 하니깐 그런거지 뭐 (자못 아는 듯이)

소년1. 이젠 글쎄 우리 아버진 짬이 생겼다면서 밤이면 농사 짓는 공부를 다 하신다.

소년2. 야 너의 아버지만 그런 줄 아니? 우리 누난 씨! 요새 돼지 기르는 공부를 다 한다구.

소년3. 우리 아버진 올핸 혼자서 농사할 때보다 두배나 더 되는 쌀을 받게 된다는 거야.

소년4. 우리두! 그런데 너인 이걸 모를거야. 난 형님한테서 들었는데 봄엔 덕골의 뜨락또르 임경소에 더 많은 뜨락또르가 오구 꼼바인도 오구 그래서 래년엔 임경소에서 우리 협동 조합 갈도 꼼바인으로 해준대.

소년2 야! 멋찌구나, 빨리 한번 꼼바인을 보면 좋겠네.

소년3. (꿈꾸듯) 이제 우리 마을은 몰라 보게 달라질거야 잉?

일동. 그럼 뭐.

소년4. 얘들아! 오늘두 협동 조합 닭의모이 주고 가자.

일동. 응 그래 (웃으며 떠들며 오른 편으로 퇴장)

아버지. 꼼바인? 허 거 첨 듣는 소린데. (다시 탈곡기를 고치다 잘 되지 않는듯 짜증을 내며) 언 참 라사못 하나 얻으려 간게 왜 이리 늦담.

△ 가까이서 소녀들의 《꿀꿀 꿀꿀꿀》 돼지 모는 소리, 이윽고 소녀 하나가 급히 달려 나와 무엇을 찾노라 두리번거리다 성식이 아버지를 발견한다.

소녀. 성식이 아버지! 우리 협동 조합 돼지 새끼 한 마리 못 봤어요?

아버지. (대답도 하지않고 그냥 탈곡기에만 달려 붙어 있다).

소녀. (좀더 큰 소리로) 성식이 아버지! 우리 협동 조합 돼지 새끼 못 보셨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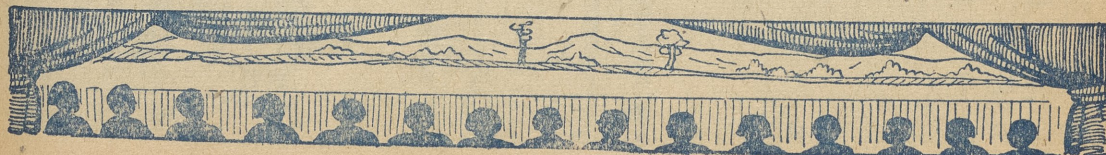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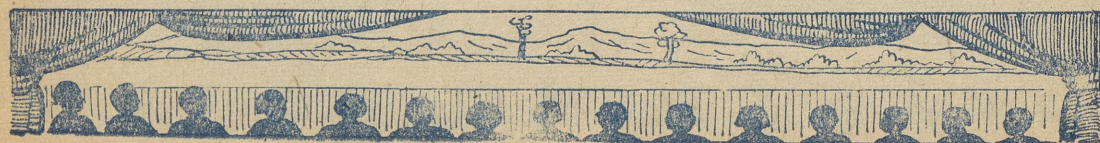
아버지. (짜증을 내며) 소새끼도 못 봤다.

소녀 (그바람에 어깨를 움추리며 퇴장).

△ 이윽고 어머니가 오른 편에서 등장.

어머니. (라사 못을 주며) 엇수다.

아버지. 아니 라사못은 베려 가지구 오는거요?

어머니 아니 원 라사못이 길'가에 떨어져 있답디까? 이것두 협동 조합의 순명이 아버지가 줘게 얻어 왔지.
아버지. 좀 빨랑빨랑 다니우!
어머니. 아니 요샌 왜 그리 성만 내 가지구 그러우?
아버지. 형! 나더러 성을 낸대.
어머니. 여보 이젠 그만 하구 우리도 협동 조합에 들어 갑시다. 아 이제야 눈으로 똑똑히 보질 않았소.
아버지. 형! 이제 무슨 체면에……
어머니. 이자두 순명이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집에선 올해 배당이 벼만 해두 아흔세가마니구 게다가 조합원 매사람에게 닭 오리 돼지 친 돈이 일만 칠천 몇백원씩 돌아 간다는데—.
아버지. 아니 그게 정말이여?
어머니. 순명이 아버지가 거짓 말을 하겠소? 그러니 우린 혼자서 박박 애를 써서 마흔 가마니를 겨우 거두질 않았소.
아버지. … (말없이 라사못을 조이기 시작한다).
△ 이때 성식이가 벽보를 말아 옆에 끼고 생각에 잠긴 얼굴로 왼편으로 나온다.
어머니. 아니 성식아! 너 왜 그러니?
성식. 아무 일도 안야요.
어머니. 낯색이 좋질 않기 말이다. 내 이제 점심을 차려 줄라.
성식. 먹었어요.
어머니. 어디서?
성식. 순명이네 집에서……조합에서 타온 호감자를 쪄 줘서… (책 가방을 나무 밑에 내려 놓으며) 어머니, 깔개 어디 있어요?
어머니. 깔개야 헛간에 있지 왜?
성식. 이제부터 난 순명이 하구 벽보 그림을 그려야 해요. (헛간으로 가다 말고 무슨 생각에선지 문득 서고 생각하다 옷을 벗기 시작한다.
어머니. 아니 벽보 그림을 그린다면서?
성식……오늘 벽보는 그리구 싶지 않아요 (하며 탈곡기로 간다.)
아버지. 괜찮다! 너는 좀 쉬여라.
성식. 일 없어요. 나두 일할래요.
아버지. (벼를 훑으며) 왜 무슨 일이 생겼니?
성식. 안—요.
△ 세 사람 탈곡을 시작한다. 어머니는 벼'단을 섬겨 준다. 성식이네 집 탈곡기와 협동 조합 자동 탈곡기 소리가 좋은 대조가 되여 들여 온다.
성식. 우린 언제 협동 조합에 들어요?
아버지. 음? (좀 당황해서)
성식. 난 군대 나간 형님께 이제 우리두 조합에 들거라구 편지를 했어요.
아버지. 아니 그런 걸 어째 물어 보지두 않구 마음대루!
성식. 그럼 우린 협동 조합에 안들어요?
아버지. 누가 너더러 그런 걱정 하래?
성식. 씨! 오늘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이제 몇해만 지나면 우리 마을은 협동 조합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몇배나 더 살기 좋은 새 마을이 된다는 거야요.
어머니. 아무렴, 협동 조합이 생긴지 일년두 못돼서 벌써 이렇게 마을이 달라졌는데….너의 아버진 공연히…
아버지. 쓸데 없는 소릴……
성식. 형님도 알믄 부끄러워할 거야요. 그래 난 우리도 든다고 편질 했지.
아버지. 언 녀석 같으니라구……
어머니. 그럼 성태는 이젠 우리도 조합원이 된줄 알고 있겠구나.
△ 이때 분단 벽보 주필 순명이가 벽보에 쓸 화구며 붓을 가지고 오른 편으로 나온다.
순명. (어른들께)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오냐 순명이 왔냐?
순명. (일하고 있는 성식에게) 성식아! 너 벌써 그림 다 그렸니?
성식. (대답 대신 고개를 흔든다).
순명. 얘 그럼 어떻가니? (민망스러워)
어머니. (성식에게) 그런걸 넌 왜?
성식. (더욱 기분이 상해서 일만 하고 있다).
순명. 넌 참! 분단 위원회에서 오늘 중으로 붙이라구 하잖던? 그래 난 막 이렇게 화구랑 다 가져 왔는데!
어머니. 성식아! 그런데 넌 왜 이러구 있나? 할거야 해 놔야지.
성식. (말 없이 탈곡기에서 물러나 헛간으로 간다).
어머니. (순명에게) 얘 오늘도 어머닌 조합에 나가셨냐?
순명. 네! 오늘은 일'손이 남는 사람들 끼리 락천벌을 일쿠

러 나가셨어요.

아버지. 락천벌을? 물도 없는 텐데……

순명. 왜 물이 없다구요? 이제 탈곡만 마치믄 모두 수로를 파러 나간다는데요 뭐.

아버지. 글쎄 물이 어데 있게!

순명. 강에서 전기로 물을 끌어 올리죠 뭐.

아버지. 음……(무엇인가 생각에 잠긴다). 그럼 사천평은 넉넉히 돼.

△ 성식이 깔개를 가지고 나와 나무 그늘에 편다.

순명. (급히 벽보 용지를 펴 놓으며) 자 빨리! (독촉한다) 이러단 늦겠다.

성식. 순명아……이 그림 말구 다른 그림 그리게 해줘 (애원 하듯).

순명. 왜 그러니?

성식. 그릴 마음이 없는걸 뭐.

순명. (그의 마음을 모르고). 전 또 무슨 소리냐?

아버지. 머가 어째서 그림을 못 그린다는게냐. 재간을 가졌으면 척척 그릴 것이지 (일을 계속하며).

성식. 아버진 알지두 못하면서 (일어서며).

순명. ? (놀래서).

어머니.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리 옥신 각신이냐?

순명. (어리 둥절해서) 성식인 우리 분단에서 만화를 썩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그림을 부탁했는데…

어머니. 《어느 것이 좋다니?》

순명. 이 그림은 협동 조합에 든 집과 들지 않은 집을 만화로…… 아 (말하다 말고 놀래여 손으로 자기 입을 막는다)

아버지. ?! (놀랜 얼굴로 일 손을 멈추며 두 아이를 바라 본다).

성식. (품은 마음을 쏟아 놓듯) 넌 막 몰라! 협동 조합에 들지 않은 건 우린데 내가 어떻게 이 만화를 그려!

순명. (더욱 당황해서 사람들을 번갈아 본다).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며) 여보! 성식이 말을 들었수?

△ 아버지 슬며시 벼'단을 놓으며 어지러운 얼굴을 하며

대통을 끄내 입에 문다.

순명. (슬며시 벽보를 치우며 성식에게) 성식아! 용서해! 난 그만 그걸 깜박 잊구 바쁜 것만 생각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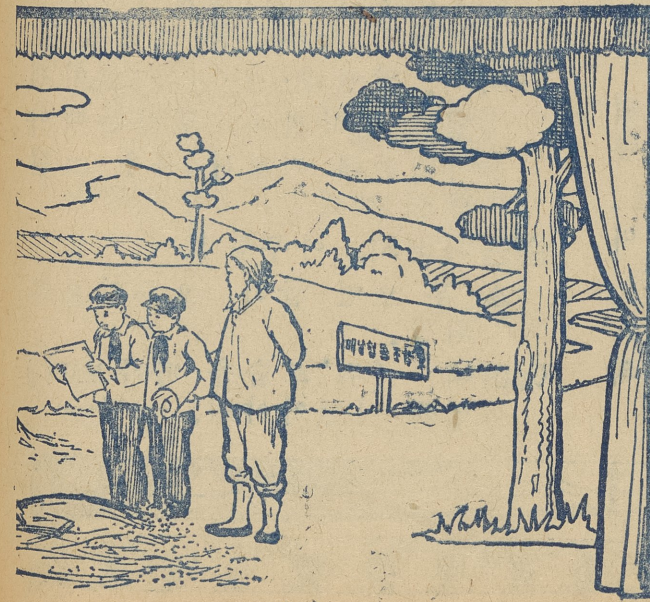
△ 이때 일하던 차림으로 순명 아버지가 급히 오른 편으로 들어 온다.

순명아버지. (무엇이 좋았던지 싱글 벙글 웃으며) 이 집도 일에 성수가 났구먼……

아버지. 비웃지 말게……

순명아버지. 허허……누가 비웃는대? 그건 그렇구. 여보게 기쁜 소식이 왔네! 군대 나간 성태한테서 편지야. (편지를 내밀며)

아버지. 뭐?

성식. (기뻐서 달려와 편지를 받아 들고 겉 봉투를 읽는다). 《배남 협동 조합 내 김 찬보 아버지 앞》. (놀래며) 순명이 아버지! 어떻게 협동 조합으로 이 편지가 왔어요?

순명아버지. 허허! (아버지에게) 동갑! 성태는 자네가 협동 조합에서 일하는 줄 알구 우리한테 보낸 모양이지……

어머니. 글쎄 이 애가 그렇게 될거라구 미리 편지를 냈다지 않소, 글쎄.

순명아버지. 허허……그런 사연이 있었구먼.

성식. (성급히 봉투를 뜯고 읽는다).

《아버지! 나는 요새 매일처럼 신문을 통해 힘을 합해 일하는 기쁨 속에 나날이 살림이 꽃피여 가는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소식을 읽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협동 조합에서 남들의 앞장에 서서 일하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늘 전우들에게 자랑을 한답니다. 협동 조합을 중심으로 새로 꾸려질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말입니다.》 (차츰 읽는 소리가 낮아진다.)

아버지. 그만 해 둬라! (듣기가 거북해서).

순명아버지. 이젠 자네 고집도 그만 해 두게, 협동 조합이 어떻다구.

이제는 말 안 해두 알게 아닌가.

아버지. …… (생각을 곱씹다가) 이제라도 들수 있을가?

성식. 아버지 ……정말이야요?

(기뻐서)

순명아버지. 아 자네만 원한다면야!

아버지. 그럼 부탁하이.

성식. 아버지! (목메인 소리로 아버지 품에 안긴다.)

아버지. 어서 이젠 그 벽보를 그려라.

성식. 아버지 고맙습니다. (꺼뜩 인사를 하며)

일동. 하하……

성식. 아버지…… 난 이런 것도 쓰겠어요. 《우리 협동 조합에 또한 집이 들었다…》 이렇게.

순명. 야 이젠 여섯집이 남았네.

아버지. 눈으로 보고서야 안들수 있나.

성식. 순명아! 자 이제 난 벽보를 그리겠다. 야! 난 막 갑자기 이렇게 기뻐지네. (하며 엉덩이를 툭툭 치며 돌아 간다.)

일동. 하하!

순명. 성식아! (기뻐서 성식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여보! 오늘 당장 성대한테 편지를 씁시다. 우리도 협동 조합에 들어 잘 살게 되였다구.

성식. 어머니! 오늘은 기쁜 날이예요. 편지는 내가 쓸테야요. 야! 그럼 형님은 얼마나 좋아할가.

아버지. (순명이 아버지에게) 동갑! 난 우리 저 녀석(성식이를 눈짓하며) 만큼도 앞을 내다 보지 못했으니…

순명아버지. (기뻐서 아버지 손을 잡으며) 깨달았으니 기쁘이.

성식. 순명아! 벽보를 그리자.

△ 두 아이 기뻐서 달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일동. 허허…… (사랑스러운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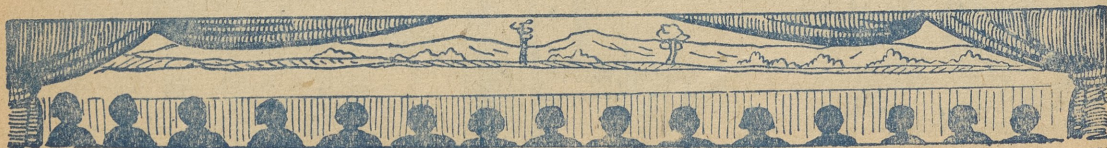
아버지. 한해를 지내보니 협동조합이 좋구나 하는건 벌써 알고 있었지!

순명아버지. 허허……자네 성미두. 좋아지니 들겠다하는게 어쩐지 쑥스러워 그랬겠지.

아버지. 맞았네…… 나도 이젠 힘껏 일하겠네. 일하는데야 자네한테 지겠나, 자! 그럼 당장 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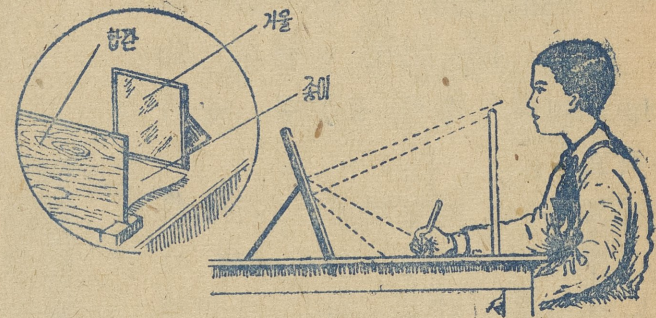
순명아버지. 아무럼!

△ 두 로인 급히 오른편으로 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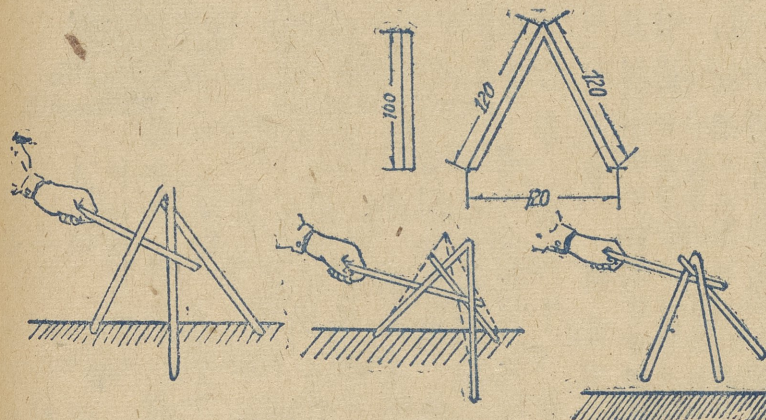
어머니. (뒤'모습을 바라보며) 벌써 이랬어야지. —막—

두가지 놀음

☆ ★ ☆

유쾌한 거울

내기하는 사람 앞에 거울을 놓고 그 앞에 흰 종이를 한 장 깔고 또 그 앞에는 그리 크지 않은 판자를 세워 놓고 판자 우로 거울의 웃면이 보일 수 있게 해 놓는다.

그리고 내기를 할 때에는 손에 연필을 쥐고 거울을 넘겨 보면서 종이 우에 자기 이름을 쓰고 사각형과 대각선 및 기타 여러가지 모양들을 그리게 한다.

☆

쳐들어 보시요!

이 놀음을 하려면 두꺼운 합판으로 각이 하나인 삼각형 한개와 좁은 판자 두개가 있어야 한다.

이 좁은 판자 하나를 삼각형에 갖다 대여 그림과 같이 삼각대 비슷하게 세워 놓는다.

이렇게 한 다음 다른 판자로서 이 삼각형과 판자를 손을 대지 말고 쳐 들어 보시요.

공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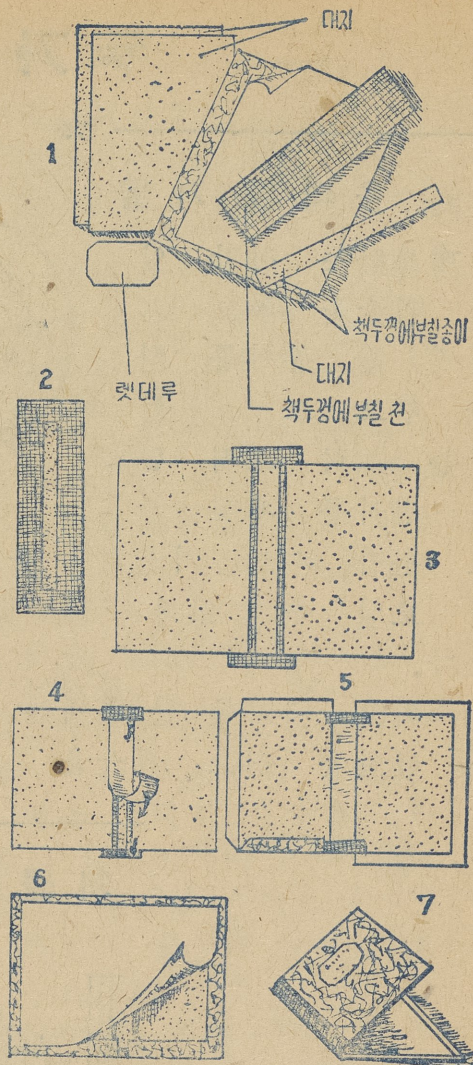
책 뚜껑 만들기

그림 1에서 보는 재료(큰 대지 180×220, 천 60×270 좁은 대지 10×270, 렛테루 50×65 기타 종이 등)를 준비하시요.

재료가 마련되면 처음에 책 뚜껑에 붙일 천의 뒤'면에 풀칠을 하고 천 가운데에 그림 2와 같이 좁은 대지를 붙입니다(좁은 대지의 넓이는 책 뚜껑의 크기에 따라 여러가지로 할 수 있음).

다음에 좁은 대지가 붙어 있는 천의 량쪽에 그림 3과 같이 큰 대지로 만든 책 뚜껑감을 붙이고 그 우에 그림 4와 같이 오려낸 신문지나 흰 종이 조박을 붙이시요. 그리고 뒤에 바른 천의 량끝을 접어서 그림 5와 같이 뚜껑 안으로 불입니다.

대지로 만든 표지 두 장에는 그림 6과 같이 미리 준비한 흰 종이를 량쪽 표지의 안에 맞게 붙이시요. 우선 표지 안에 종이를 붙이기 전에 네 귀를 잘 맞추어 베인 후 풀칠을 하여 붙여야 합니다.

표지 밖에는 그림 7과 같이 색종이를 바르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책 뚜껑의 겉 표지에는 책명을 쓸 렛테루를 붙여 놓으시요.

이렇게 표지가 만들어지면 다음엔 표지가 쭈그러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잘 말리워야 합니다.

표지를 말리울 때에는 표지를 깨끗한 종이에 싸가지고 판자 밑이나 합판짝 안에 넣고 그 우에 무거운 짐을 실어 놓으면 됩니다.

무슨 꽃일가?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영남이와 인영이는 복습을 다하고 나서 연을 띄우며 놀았습니다.

잘 오르던 연은 갑자기 개울'가의 나무 우에 걸렸습니다.

영남이와 인영이는 연을 내리우기 위하여 개울'가로 갔습니다. 영남이는 나무에 올라가 연을 떼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때 인영이는 《아, 벌써 꽃이 피였네!》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꽃은 무슨 꽃이 벌써 피여? 산골짜기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는데. 거짓말!》. 영남이는 못 믿어운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영이는《아니야. 제일 먼저 꽃봉오리가 불어나서 봄 소식을 알리는 꽃이야! 주위를 자세히 살펴 봐!》하고 열마 있다가 나무가지를 가리켰습니다.

인영이가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꽃이라고 한 것은 무슨 꽃일가요?

☆

1호 현상 문제 해답 및 당선자발표

해 답

1번 60 km + 40km = 100km

2번

(1차격전)

2	7	2
7	36	7
2	7	2

(2차격전)

3	5	3
5	32	5
3	5	3

(3차격전)

4	3	4
3	28	3
4	3	4

(4차격전)

5	1	5
1	24	1
5	1	5

(5차격전)

5		6
	22	
6		5

당선자

평양특별시 제17 인민학교 황 홍 녑
평안남도 평원군삼봉인민학교 백 정 구
평안남도 신양군지동인민학교 리 기 빈
평안북도 박천군남홍인민학교 송 봉 규
함경남도 북청군제6중학교 최 희 송
함경북도 경원군하면인민학교 박 창 옥
강원도 고성 제1중학교인민반 박 승 문
개성시 남산인민학교 우 명 식
황해북도 서흥군당현인민학교 유 춘 자
자강도 화평군가산인민학교 최 눈 섭

1955년 3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5년 3월 20일 발행 《소년단》 1955년 제3호(총66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0027 값 40 원 총배포처 체신성 출판물 관리국

종이
알콜